현대차 제네시스

한국GM '말리부 디젤'

수입차 게 섰거라, 국산 디젤차 나간다

수입차 파죽지세에 국산차 대응 본격화

한국GM, '말리부 디젤' 출시 정면승부

현대차, 제네시스 출시 공격적 마케팅

수입차 브랜드들이 내수 시장에서 파죽지세로 판매량을 늘려가자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수입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 3월(1만5733대)에 이어 4월(1만6712대)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업계의 올해 수입차 판매량이 예상치인 18만대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내수 시장의 수입 승용차 점유율은 지난해 12.7%에서 올해는 13.4%까지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수입차의 판매 공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에 나섰다.

맞불을 놓은 지점은 갈수록 커지는 디젤차 시장, 그리고 가격 등 측면에서 수입차와 경합도가 높은 대형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이다.

국내 디젤차 시장은 이미 유럽 브랜드들이 주도권을 쥔 상태다. 우수한 연비와 동력성능을 갖추는 한편 다양한 가격대로 선택 폭을 넓힌 수입 디젤 모델들이 나오자 국산 브랜드들은 고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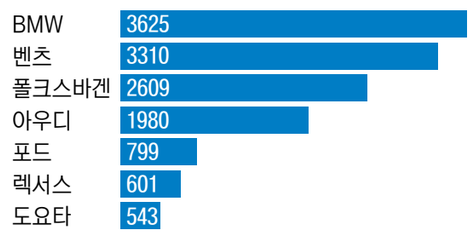
한국GM은 독일 오펠사(社)의 디젤 엔진을 장착한 중형세단 '말리부 디젤'을 지난 3월 출시해 정면 승부를 걸었다. 물량이 부족해 최근 2014년형 모델 판매를 중단하고 2015년형 모델의 사전 계약을 받을 정도로 초기 반응이 뜨겁다.

여세를 몰아 오는 6월에는 독일 디젤차 브랜드와 말리부 디젤의 비교시승 행사를 연다. 인터넷을 통해 고객 180명을 주행시험장으로 초청, BMW의 '320d'와 폴크스바겐 '파사트' 등 유력 디젤 모델들과 성능 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뒤지지 않는 연비와 동력,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등을 고객들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내 디젤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게 한국GM의 전략이다.

현대차도 준대형 세단 그랜저의 디젤 모델을 이달 말 부산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이고 하반기에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4월 수입차 등록 대수 〈단위:대〉



신형 쏘나타의 디젤 모델 역시 개발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출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산 브랜드들은 디젤차 출시를 통한 정면 대응 뿐 아니라 대형차와 SUV 시장을 수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준대형 이상의 국산 세단과 SUV 차량은 가격 측면에서 고객들이 수입차와 가장 많이 저울질하는 차종이다. 같은 돈으로 차급을 조금 낮춰 수입차를 살지, 차량의 크기나 사양 등을 고려해 국산차를 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고민 중인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현대·기아차는 신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대차의 대형 세단 신형 제네시스가 대표적이다. 제네시스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倍) 이상 많은 1만445대가 팔렸다. 신차 효과 덕분이다.

수입차로 돌아섰던 고객의 마음을 돌리려는 마케팅도 한창이다. 현대차는 수입차 보유 고객이 에쿠스와 제네시스, i30 등을 사면 30만~50만원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올해 1~4월 현대차의 내수 판매량 중에서 SUV를 비롯한 레저용 차량과 대형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2.6%이다. 지난해 비중인 38.7%보다 3.9%포인트 늘었다.

수입차와 경합도가 높은 대형차와 SUV 분야에서 신차 출시와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판매량을 늘려 수입 브랜드의 잠식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쏘나타 구매층 젊어진다

LF쏘나타 30대 고객 20.7%

1985년 출시후 첫 20% 넘어

올해로 출시 30년을 맞은 '국민세단' 쏘나타의 구매층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젊어지는 추세다.

현대자동차는 7세대 LF쏘나타가 3월 출시 이후 11일 현재까지 총 1만1904대가 팔린 가운데 30대 고객이 전체 판매량의 20.7%를 구입해 1985년 쏘나타가 첫선을 보인 이후 처음으로 30대 구매층 비중이 20%를 넘었다고 밝혔다.

앞서 YF쏘나타 전체 구매층의 16.6%에 불과했던 30대가, 쏘나타의 주 수요층인 40대(24.0%)·50대(23.7%)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한 셈이다.

20대의 구매 비중도 YF쏘나타 3.4%에서 LF쏘나타 6.4%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전 모델들과 비교하면 구매층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현대차가 1985년 내놓은 구형 쏘나타는 60대 고객이 총 판매량의 65.0%를 사들여 대부분을 차지한 데 이어 70대 비중이 20.0%를 기록한 '노년층의 자동차'였다.

1994년 2세대와 3세대 쏘나타가 잇따라 등장하자 60~70대 비중이 내려간 대신 50대가 38.3%, 40대가 11.9%를 각각 구매해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1세대 쏘나타 판매때와 마찬가지로 20~30대 고객은 전무했다. 젊은층은 2000년 출시된 EF쏘나타(20대 4.2%, 30대 6.1%) 모델부터 구매 행렬에 동참했지만, 2005년 판매 개시된 NF쏘나타(20대 5.4%, 30대 6.4%) 모델까지만 해도 구매 실적이 미미했다.

그러나 2010년 YF쏘나타가 나오자 30대가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체 판매 대수의 16.6%를, 20대는 3.4%를 구매하는 등 두각을 드러냈고 최근 LF쏘나타에서는 역대 최고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한때 쏘나타 판매 실적을 좌우했던 노년층의 비중은 60대 14,8%, 70대 10.5%로 축소됐다.

쏘나타 고객들이 젊어진 것은 그만큼 이 모델이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첫 출시 때 국내 최고급 세단이었던 쏘나타가 차츰 대중화돼 현대차 라인업의 중간쯤에 자리잡은 '국민세단'이 됐고, 젊은층의 구매력도 높아져 부담없이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예전보다 짧은 간격으로 신차를 속속 투입한 것도 젊은층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세대 이후 2세대 쏘나타가 나오기까지 9년이 걸렸지만 이후 신차 주기가 6년, 5년으로 좁혀져 7세대는 4년만에 풀체인지됐다.

/연합뉴스

수입차 등록 신기록

4월 1만6712대… 6.2% 증가

BMW·벤츠·폴크스바겐 順

수입차 판매량이 3월에 이어 4월 사상 최대치 기록을 새로 갈아치우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5% 증가한 1만6712대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기존 월간 최대 판매량이던 3월 실적(1만5733대)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올해 1~4월 수입차 누적 등록대수는 6만114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6% 늘었다. 지난달 수입차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BMW가 3625대로 1위를 차지했고, 메르세데스-벤츠(3310대)와 폴크스바겐(2609대), 아우디(1980대), 포드(799대) 등이 뒤를 이었다.

렉서스(601대)와 도요타(543대), 닛산(433대), 랜드로버(355대), 크라이슬러(344대) 등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메르세데스-벤츠의 E220 CDI(628대)였고 BMW의 520d(599대)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587대) 등도 인기를 끌었다.

배기량별 등록 대수는 2000cc 미만 9152대(54.8%), 2000~3000cc 5497대(32.9%), 3000~4000cc 1498대(9.0%), 4000cc 이상 565대(3.3%)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가 속한 국가나 권역별 등록 대수는 유럽이 1만3371대로 전체의 80.1%를 차지했고 일본은 2172대(13.0%), 미국은 1169대(7.0%)였다.

연료별로는 디젤이 1만1254대(67.3%)로 가장 많았고 가솔린(4753대, 28.4%)과 하이브리드(702대, 4.2%), 전기차(3대, 0.0%)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합뉴스

기아 쏘렌토 최고 가족용 차량

美 자동차기자협 선정

기아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가 북아메리카 북서지역자동차기자협회(NWAPA)가 뽑는 '최고의 가족용 차량'에 선정됐다.

미국과 캐나다의 태평양 연안 지역 자동차 전문기자로 구성된 NWAPA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에서 열린 연례 '머드 페스트'에서 투표를 통해 쏘렌토에 이 상을 줬다.

기아차 미국법인 마이클 스프라그 부사장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쏘렌토의 가치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축원룸매매(전대1분)

①전대상대1분(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룸21개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월수익 880만(1년 1억500만)
매가 12억(보1억 융3억) 수익율 12%

②전대정문,후문1분(신축4층룸12개)★
1층 점포, 4층 고급주택, 월수익 450만 매가 6억 7천 (보3천 , 융 1억2천)

③나주 이창동 원룸★
룸 18개 월 550만 매가 4억3천(융1억2) 수익율 13%

상가매매(수익형노후보장)

④수완지구3층(85평)매가3억5천★
모아엘가 APT입구 최고위치(보3천 월190만 융2억5천)

⑤첨단지구상가매매2층(62평)매가1억7천★
오션스파 임대가 보증금2천 월90만 사무실 시설 완비됨(주인직접 사용가)

★쌍촌역 오피스텔 매매(원룸형,투룸형운천역2분)★
원룸시설완비 올리모델링 전자제품 신규교체
• 원룸형(11평) 매가 3천3백(보 200, 월 27, 융1000)
• 투룸형(15평) 매가 4천3백(보 300, 월 36, 융1500)
• 투룸임대(15평) 보증금 3백 월 36만원(즉시입주가 올리모델링 방금)
★세채매입시 총매가 1억1천만(융4500만 실투자 6500만(월수익 100만원) 수익율15%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나주혁신 토지매매

나주혁신중심도로 빛가람로코너
근생지역 D-9블럭
코너 273평
매가 27억(융 16억)
부영 APT 정문 맞은편 코너
최고위치, 국립전파원옆
신축5층가능
(1층만 건축시 월수익 16000만원
1년 수익 2억)
(전면 7칸, 후면 2칸)
수익율13%

나주시산포면등수리 생산관리지역
(도로접) 주택신축가능 945평 매가 3억2천
(1년 500만 수익발생)

화정동 상가 토지 매매
5천세대 아파트 주변
한양아파트 코너 433㎡
(㎡당 170만원) 신축5층가능

010-6832-9700 062)952-558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급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쌍촌역 인근고시원 대지 272㎡(87)건물 493㎡(149) 수익률 보증금 3천에 월 580선 연금생활에 적합 5억 2천
○ 쌍촌동 치평중학교 부근 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3천 월500선 수익 5억2천
○ 700만원에 이전해갈 생활주택부지 영암읍 도로접 1380㎡(417) 대출 1억2천 원룸 적합 700만원
○ 동구 대지 542㎡ (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예식장 대지 1924(582)건물 3287㎡(994)요양병원 등도 적합 감정 47억 3천 매도 27억 3천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접 관리지역 8553㎡(2587)평탄 한땅 공장,창고등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500만원
○ 시내 목욕탕과 여관등 대지 765㎡(231)건물 2529㎡(765) 감정 22억 대출없음 매도 13억
○ 쌍촌역 4거리 나대지 377㎡(111)7억천
○ 무인텔적합부지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 1666㎡(504) 대출 13억천 매도 은행 인수하고 9천만원
○ 영암읍 APT와 생활주택 112세대 허가난땅 4615㎡(1396) 은행 3억2천 매도,교환 6억3천
○ 쌍촌동 5.18공원 건너편 원룸촌 대지 198㎡ 건물 453㎡(137) 1층 가게와 안집, 원룸 15개 5억8천
○ 원룸, 생활주택부지 쌍촌동 1종 주거지 2236㎡(676) 대출 8억6천 매도 13억

임대 • 투자 • 교환
○ 쌍촌동 원룸 건물 대지 222㎡(67) 건평 330㎡(100) 운천역 1분거리 보증금 2천선 월 300선수익 매도3억8천
○ 신안동 상업지 333㎡원룸 등 적합 3억 2천
○ 남구 사동 시직공원 10월 준공예정인 생활주택 85㎡ 은행 1억5천선 생활여건 좋음 2억3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명프렌차이즈 입점)
▶ 북구 신용동 유치원 건물 매매 23억
▶ 광산구 신창동 4층건물 매매 27억(보4.1억 월1,240만)
▶ 서구 쌍촌동 5층건물 매매 15억 (보1.7억 월700만)
▶ 서구 치평동 5층건물 매매 40억 (보4억 월2,000만)
▶ 광산구 수완지구 상가건물 매매 110억

대지/전답
▶북구 용두동 1종주거지역 답 1,990㎡ 매매 6억 6천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760㎡ 매매 16억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매54억(병원최적)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1,920㎡ 매매 12억(창고적합)
▶북구 용전동 생산녹지 답 7,900㎡ 매매 29억(4거리코너)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답 2,000㎡ 매매 6억5천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지역 29,800㎡ 매매39억
▶서구 마륵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매 20억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800㎡ 매매 16억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벽진동 창고 730㎡ 임대 보 5천 월 450만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 의

◆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에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낚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다산 수입 목조 건축물(100%)에 수입 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무소 대표:송 창 석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